



왼쪽부터 라미란, 민효린, 김숙, 제시, 티파니, 홍진경

# “언니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언니들의 슬램덩크’ 내일 밤 11시 첫 방송... “예능계 여성시대 열 것”

“여러분, 드디어 여자 예능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의 독무대, 피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는데 이제 저희에게 이런 무대가 만들어졌네요.”

오는 8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에 출연하는 개그우먼 홍진경의 일선이다.

“육아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열풍에 MC 자리까지 남자 연예인들이 꿰차면서 여성 연예인들을 보기 힘들었던 방송계에서 KBS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자 예능’을 들고나왔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어릴 때 데뷔해서, 무명 시절이 길어서 갖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6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계 모임 ‘꿈계’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남자 연예인들이 주를 이뤘던 방송계에 ‘걸크러쉬’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라인업도 화려하다.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가모장’적인 모습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갓속’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숙부터 ‘응답하라 1988’에서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던 ‘치타여자’ 라미란, 예능에서 잔뼈가 굵은 홍진경, 첫 예능 고정출연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배우 민효린, ‘썸녀니’의 대표주자 제시, 아가자기한 성격의 소녀시대 멤버 티파

니가 계 모임 멤버로 참여한다.

김숙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사실 의외의 조합이고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결국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더라”며 “서로의 꿈과 이상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뤄가는 일을 도와나가는 데서 시청자분들도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가수, 배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연니와 막내의 나이 차도 14살이나 되지만 첫 녹화와 회식을 마친 이들은 이미 끈끈한 우정을 쌓은 듯 보였다.

특히 엠넷 ‘인프리티 랩스타’ 등을 통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제시와 여성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진 티파니의 ‘의외의 우정’도 화제가 됐다.

티파니는 “꿈을 같이 꾸었고, 한국에서 와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연습하는 기간을 같이 보내고 또 꿈을 이뤘는데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또 다른 꿈을 같이 꾸고 있을 수 있게 돼서 저에게는 정말 의미 깊다”며 “멤버들이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 긍정적인 분위기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제시는 “김숙 언니가 스웨그(SWAG : 허세부리며 과시한다는 의미의 합방용어)도 있고 정말 맛있고 민효린

언니도 얼굴과 성격이 완전 반대다”라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첫 회 보시면 정말 ‘골 때릴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22년 무명생활 동안 간직했던 꿈을 털어놓을 예정인 라미란은 “재미있게 해야한다. 웃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PD가) 이야기해서 나오게 됐다”며 “일하는 것에 급급해서 살다가 내 꿈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됐다. 단순한 예능이러기보다는 교육적인 면, 다뤄적인 면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진경도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 각자 기상천외한 꿈들이 있더라”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콘셉트라서 저도 기대되고 마음속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뤄가는 모습으로 여자들의 의리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능에서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던 데다 도도하고 새침한 이미지를 가진 민효린은 이 프로그램 출연이 의외라는 말에 “저를 오래 봐온 박진영 오빠(소속사 대표)는 제가 제일 웃기다고 하더라. 구수하고 시골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박진영의 깜짝 출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첫 방송은 8일 밤 11시. /연합뉴스

# “왕의 여인보다 순박한 복순이 더 좋아”

## 윤진서

### SBS ‘대박’서 숙빈 최씨 역 첫 사극 도전 “생소한 모험”



조선 숙종 대를 배경으로 한 SBS TV 사극 ‘대박’이 휩쓸린 격랑의 중심에는 숙빈 최씨(윤진서 분·사진)가 있다.

숙빈 최씨는 극 중 인인(전광렬) 설명대로 가문도 족보도 없는 천출 무수리에서 왕의 여자, 나아가 왕의 어머니까지 되는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다.

5일 오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의 청담동 사옥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윤진서(33)는 “궁중 생활을 해 보니 무수리 삶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비록 연기로 경험했지만 궁에서 지내보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머리에 쓴 가치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묵도 안 돌아갈 지경이고 웃도 불편해요. 생활은 궁뎅하고 힘들어도 복순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복순은 윤진서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족보까지 노름으로 날려먹은 천하의 난봉꾼 남편 백만금(이문식)을 떠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 숙종(최민수)의 여자가 됐다. 아무리 인인과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일개 무수리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책에 대해 윤진서는 “신선할”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장희빈부터 시작해 정미에 정통한 여자들 가운데서 살던 숙종에게 정치의 ‘정’자는커녕, 그런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순박한 복순은 새로운 느낌의 여자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무수리로부터 ‘그렇게 일한다고 남이 알아주느냐’고 핀잔을 들으면서도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나 노름꾼 남편을 비롯한 복순의 주변 상황도 숙종에게 연민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아요. 계락을 꾸민

인인보다 분명히 (방송에서 등장한 것보다) 더 오래 복순을 지켜봐 줄 걸로 생각해요.”

숙빈 최씨는 그동안 TV 사극에 간간히 등장했지만, 윤진서는 특정 배우 연기를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연출자인 권순규 PD와 주 상의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

윤진서는 복순에게서 삶의 짜든 때가 느껴지도록 하려고 애썼다. 복순이 왕의 여자가 된 이후에도 우아하고 위엄 있는 왕가의 여인으로 돌변하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다소 어수룩한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

“특히 말투를 조심했어요. 궁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바뀌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궁에서 쓰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어수룩하고 열떨만한 느낌을 살리려고 했어요.”

2001년 영화 ‘버스, 정류장’으로 데뷔한 윤진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2003)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주로 도회적인 느낌의 캐릭터를 많이 소화했다.

윤진서는 인터뷰 말미에 “사실 ‘대박’은 제게 정말 큰 모험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복순이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연기하려면 부담스러웠어요. 그 전까지 연기를 캐릭터와 달리 토속적인 배역에서 터마 역할이라는 것도 처음이니 부담이 더했어요. 사극이라는 장르도 생소했거든요.”

고한에게 납치되기도 하고, 장독에 갇히거나 화살에 맞을 뻔까지 하는 등 온갖 수난을 겪었던 윤진서는 요즘 사극의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봄이 되니 기운이 올라가서 다행”이라면서 환한 웃음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여기 들리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35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토론	40 지구촌 뉴스		15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닥터 365 05 토크쇼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12	50 문화빅뱅 더 콘서트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00 SBS 12 뉴스 30 고향이 보인다
1 10 뉴스특급	00 방송기자 초청토론회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0 4·13 총선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 30 직언직설	00 제20대 총선 후보자 법정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갑 후보자 방송토론)	00 TV 블로그 꿈지락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55 닥터 365
3 00 캐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55 파워배틀 외치기	00 3시 뉴스 브리핑
4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토론회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5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6 20 나는 몸신이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내려의 성)
7 50 서민간부	00 KBS 뉴스9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0 제20대 총선 방송연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8 0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방송(재)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신 (관광전쟁 13억의 마음 을 집어라)		30 리얼스토리 논	
9 30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맛 유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공사차량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0 해피 투게더	10 자기가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 생활 영어	09:40 달라졌어요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바지락 달래국, 주꾸미 볶음우동)
11:00 화산기행	11:00 세계테마기행 (재)
11:40 피나투보와 아예타족	11:40 한국기행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극한의 바다, 알래스카 만)	12:10 통일의 길
07:00 지파이터스(재)	(북한판 '진짜 사나이')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0 역사채널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8:00 땀방울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맘 스페이스 정글
09:00 굼디와 친구들	14:00 코코몽2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15:10 세계사 시간여행	(추억을 부르는 맛, 보리떡)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20:50 세계테마기행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열도의 난민생활, 훗카이도 4부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대지의 끝, 시레토코)
16:00 굼디와 친구들(재)	21: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도시에 살고있다 - 남양)
16:45 땀방울 유치원1~3(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30 꼬마버스 타요(재)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글로벌 특종특기
19:00 레전드이어러 삼국전	(아담의 가족 배비비 작전!)
19:30 EBS 뉴스	23:50 역사채널(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신다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음 3월 1일 己未)

<b>子</b>	48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0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72년생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긋듯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84년생 평균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9, 66	<b>午</b>	42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후이니라. 54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낙수물로 바위도 뚫리는 법이다. 78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판도이니 기쁘게 파종하자. 행운의 숫자 : 57, 18
<b>丑</b>	49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61년생 결정을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73년생 조금씩 하지 않는다면 깊은 맛을 맞으리라. 85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06, 24	<b>未</b>	43년생 가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을 낳는다. 55년생 오랫동안 학수고대하여 왔던 비가 스스로 찾아 올 것이니라. 67년생 심각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79년생 긴지름 실행을 무시한다면 큰일로 비화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2, 92
<b>寅</b>	50년생 자극을 받을 일이 생기겠다. 62년생 김수혁 그 의미가 희석될 것이다. 74년생 의도와 용기는 훌륭하나 상대방의 반응이 신중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86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14, 54	<b>申</b>	44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56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68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0년생 관찮다. 행운의 숫자 : 64, 20
<b>卯</b>	51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용이 하도다. 63년생 서로 파장파장이니 의미는 없다. 75년생 작은 현상이니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87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41	<b>酉</b>	45년생 철화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57년생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갈 것이다. 69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생산적이나라. 81년생 초기 대응에 부실하다면 판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6, 29
<b>辰</b>	40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52년생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하리라. 64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희망찬 미래를 기억하리라. 88년생 지칠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을 당한다. 행운의 숫자 : 18, 27	<b>戌</b>	46년생 적극성을 띠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58년생 폭넓은 시야라야 참신함을 도모할 수 있다. 70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리라. 82년생 패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뛰어난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0, 87
<b>巳</b>	41년생 한 곳에 집중해야 할 때다. 53년생 자칫 잘못하다가 실기하게 된다. 65년생 길성이 비추고 있느니라. 77년생 좋은 일을 관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89년생 과정을 중요시하자. 행운의 숫자 : 47, 02	<b>亥</b>	47년생 가장 왕성한 불길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5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71년생 상황이 바뀌면서 대세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된다. 83년생 파급 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0,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